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拂, 小佛 佛壇, 행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특별선원 지정 20주년 봉암사 조계종풍 형성 뿌리

동안거 죽비 내려놓던 날

백두대간의 단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높이 998m의 거대한 바위산으로,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30리 계곡을 끼고 있는 천하의 명산 경북 문경 희양산. 범상치 않은 우뚝한 모습이 한눈에 영봉임을 알 수 있는 희양산은 날으는 봉황의 형상을 한 바위산에 용과 같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봉암용곡(鳳巖龍谷)이라 불리운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는 봉황과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동방제일의 길지(吉地)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증대사 도헌스님이 879년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을 이곳에 개창하면서부터 시작된 봉암사는 고려 태조때 정진대사가 주석할 당시 3천여 대중이 정진했을 정도로 수행가풍이 이어져, "동방의 출가승도는 절을 참배하고 도를 물을 때 반드시 이곳 봉암사를 찾았다"고 할 정도로 한국 선종을 대표하는 참선도량이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는 동·하안거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반결제를 한다. 한철도 쉬지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봉암사의 태고선원 큰방 전경.

◇태고선원은 해제 3일전부터 일제히 빨래 울력을 한다. 선방 주변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깨끗한 이불들은 망상을 씻어내린 수좌들의 청정심을 대변하는 듯 하다.

동안거 결제중 80스님 용맹정진

월암스님, 기간중 '중국선종사' 특강 이례적
사시사철 안거 가풍…모든 살림 '대중공의'로

2월 26일(음 1.15) 전국 6대 종립 선원을 비롯한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일제히 동안거 해제식을 갖고 석달간의 안거정진을 회향하기 사흘전인 2월 23일. 본 기자가 조계종 특별수도원 지정(1982년) 20주년을 맞는 봉암사를 참배한 날은 태고선원(선원장 정광)에서 '죽비를 내려놓고' 대중울력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23일은 대중 빨래, 24일은 개인 빨래, 25일은 바랑을 꾸리며 휴식을 취한 후 26일 만행 떠나는 일정이었다. 백장청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좌선과 포행, 울력이 들이 아닌 정진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풍광이었다. 태고선원 큰방 주변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깨끗한 흰 이불들이 망상을 내려놓은 수좌들의 청정심을 웅변하는 것만 같았다.

이번 결제에 든 80명의 스님중에는 60대의 고령에도 불구 20~30대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한 선원장 정광스님과 선덕 소임을 맡은 설정스님이 수좌들의 사표가 되었다. 특히 조계종 종회의장을 역임한 중진 설정스님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 허약한 몸으로 지난 하안거부터 하루 10시간의 원력정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암사에서 계속 안거를 나고 싶다"고 밝혀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봉암사의 이번 결제기간중에는 한국 선종사상 특기할만한 기록이 하나 수립됐다. 지난해 중국 북경대 철학과에서 '중국 돈오선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봉암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월암스님이 선방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결제기간중에, 더구나 수좌들의 기가 세기로 유명한 종립선원에서 '중국 선종사'를 강연해 대중들도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월암스님의 특강은 당초 울력으로 예정된 시간에 비가 내리자 설정스님이 월암스님의 강의를 들어보자고 제안, 대중공의를 거쳐 2월 21일 저녁 6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다. 월암스님이 10년간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실감나는 강의를 펼치자 수좌들은 '선의 현장성'에 공감, 하루 더 강의를 듣자는 의견을 냈고 다음날은 저녁 6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역시 열강이 펼쳐졌다. 목이 쉴 정도로 강연삼매에 빠졌던 월암스님은 "중국에서의 선종사 연구를 봉암사 선방에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수좌들이 선의 현장성을 느낀 계기가 되어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암사는 종립선원답게 봄, 가을 반결제까지 한 철도 쉬지 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동안거가 끝난뒤 보름간의 해제기간을 보낸 후 3월 14일(음력 2월1일)부터 한달간 14시간 가행정진하는 봄 안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빠듯한 사시사철 안거를 운영하다 보니, 봉암사 선원은 도량전체가 철저하게 선방 살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주지, 원주를 비롯한 모든 소임이 선방 수좌들의 정진을 보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모든 면에서 '참선제일'을 표방하는 탓에 아침 예불도 목탁 대신 죽비로, 예불문도 부처님께 3배하는 것으로 대신할 정도로 치열한 정진이 계속되고 있다.

봉암사의 이러한 가풍은 원융살림의 전통을 확립한데 따른 것이다. 사중 수입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새로운 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대중공의를 통해 추진한다. 또한 일체의 문중 파벌의식을 배제해 '객이 주인처럼, 주인이 객처럼 사는 곳'이 바로 봉암사이다.

그동안 봉암사는 정부의 국립공원 지정계획도 강력히 반대하며 오로지 청정 수행도량의 면모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최근 고란초 등 각종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봉암사 사찰림을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봉암사 경내지에서 벌채, 채취,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돼 청정수행도량으로서 영구히 보전될 전망이다.

문경 봉암사=글·사진 김재경 기자

봉암사 약사

희양산문 개창(879년)이 효시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봉암사는 선문구산의 하나로 879년(헌강왕 5) 지증(智證)국사가 창건, 희양산문(曦陽山門)의 본거지가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 935년(태조 18) 정진(靜眞)국사가 재건했다. 조선시대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674년(현종 17) 신화(信和)스님이 중건했다. 이렇게 유서깊은 선도량 봉암사에 근대 선원이 개원된 것은 1947년. 해방직후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봉암사에서는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한 '봉암사 결사'가 조직됐다.

◇청담스님

◇성철스님

◇서암스님

◇혜암스님

"새 한국불교 창출" 47년 '봉암사 결사' 조직
동참자 20명중 종정 4명 총무원장 6명 배출

봉암사의 이번 동안거 결제에는 관음전에서 5명의 수좌가 하루 16시간 용맹정진을, 성적당에서 15명이 14시간 가행정진을, 태고선원 큰방에서 38명이 10시간 원력정진을, 후원에서 22명이 8시간 외호대중정진에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봉암사 결사는 1947년 성철스님을 필두로 청담, 자운, 우봉 스님 등 네 스님이 "모든 이익관계를 떠나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결사에 들어간 것이 효시다. 먼저 성철(제7대 종정), 자운, 보문, 우봉 스님이 '공주규약(共住規約)'을 제정하고 정진을 시작한 후 청담(제2대 종정), 향곡, 월산, 종수, 보경, 법전, 성수, 혜암(제10대 종정), 도우 스님 등 20인이 결사에 동참했다.

당시 결사대중은 법당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만 모시고 가사, 장삼, 발우도 새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 제정된 가사, 장삼, 발우는 현 조계종 의제의 바탕이 되었다. 포살 역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백장청규 정신을 되살려 부목과 공양주까지 내보낸 채 대중이 손수 밥하고 하루 두 짐씩 나무하는 것이 기본 일과에 들어있었다.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3배의 예를 처음으로 갖추게 하는 등 승가 생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3천배와 능엄주력 수행이 강조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처럼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정신은 1947년 항곡스님의 화엄대오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시 결사에 참여했던 20인 대중 가운데 총무원장이 6인, 종정이 4인이 배출될 정도로 현대 조계종 종풍 형성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는 1950년 6.25전쟁으로 3년만에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봉암사는 현 조실 서암스님(제8대 종정)이 원적사와 봉암사를 오가며 정비한 결과, 1970년부터 수좌들이 봉암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1972년 봉암사 희양선원은 향곡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납자가 정진했다. 이후 1974년 서옹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향곡스님이 줄곧 조실을 맡아 납자를 제접했다.

1980년 현 조실인 서암스님이 조실로 추대되었으며, 1982년 6월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7월 경북 문경군이 봉암사 경내지를 확정 고시했으며, 이어 84년 6월 제13차 비상종단상임위원회에서 선풍진작과 종단 발전을 위해 봉암사를 종립선원으로 결정했다.

인터뷰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

"열심히 살아봐야 참 결제·해제 뜻 알아"

"원래 결제(결속해서 묶는다는 뜻)와 해제가 따로 없지만, 열심히 살아봐야 참 결제와 해제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화두로 단단히 묶어 일상생활에서 화두와 씨름한 '결제'를 풀고, 자신의 화두참구로 얻은 성과를 세상에 풀어놓고 역량을 시험하는 수행이 '해제'입니다."

20~30대의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한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사진)은 2월 23일 봉암사 동암에서 "해제를 통해 성찰하면 다음에 다시 묶을 때는 물샐 틈없이 제대로 묶을 수 있다"며 해제의 본뜻을 말했다.

정광스님에 따르면 해제기간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지혜와 실천이 상응하는 기간이며 평상심(平常心)을 구현하는 수행기간이다.

"진심(眞心)과 진법(眞法)은 우주법계에 현존합니다. 자리이타, 각행원만(覺行圓滿)이 현실에서 구족돼야 해요. 임제스님은 '어떤 경계에서도 평상심이 사라지지 않고 연속되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객진번뇌가 있다면 평상심이 아닙니다. 평상심은 상주불변심이요, 불성을 의미합니다."

정광스님은 "진심이 드러나는 顯露眞心 것이 평상심이요 무심"이라며, "처음 발심하는 것과 구경각을 이룬 것과는 등차(等差)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초발심속에 공능(功能)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이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지자대사는 '견성'을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구경각을 성취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참선은 진정한 주인공을 찾는 공부다. 그러나 그 공부는 형식적인 공안이 아닌 저절로 발현되는 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광스님의 선관이다. 이에 대해 정광스님은 "공안이 타파되었다고 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완전히 타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화두는 상주불멸하는 영원한 의문, 살아있는 의문이 돼야 해요. 공안이 타파되고 안되고는 방편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평상심 상주불변심…불성 의미
'살아있는 의문'돼야 참된 화두

정광스님이 봉암사를 오가며 정진한 것은 30여년전. 본격적으로 주석하게 된 것은 20년전부터다. 그동안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관련 비문들을 번역하며, 한국 선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남모르게 진행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선을 좋아했다는 정광스님은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출가를 결심, 금생에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리라는 원을 세웠다.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잠 안자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임제록〉의 활발발한 무위진인의 경계에 대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